

미래성장동력 정책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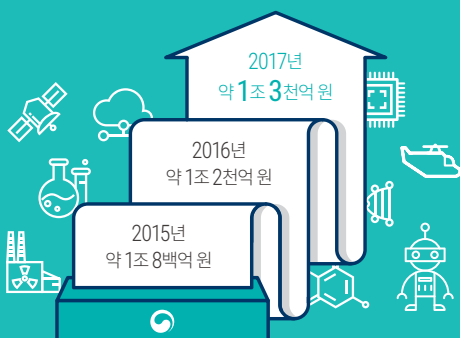
임길한 사업평가관

“ 우리나라는 역대 정부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면서 정책추진체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정부는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성장동력을 선정하였지만, 분야별로 산업 전반의 파급효과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투자전략과 투자실태도 불일치하는 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미래성장동력 정책을 수립·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며, 정부 R&D투자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예산을 전략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투자전략과 실제 투자계획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부와 민간투자 간의 역할분담을 투자전략에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

미래성장동력 정책의 추진 경과와 실태 분석을 통해 정책추진의 연속성, 투자분야별 효과성, 투자전략의 적정성을 평가함.

미래성장동력 분야 재정지원*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15년 결산, '16년 예산, '17년 예산안

미래성장동력 정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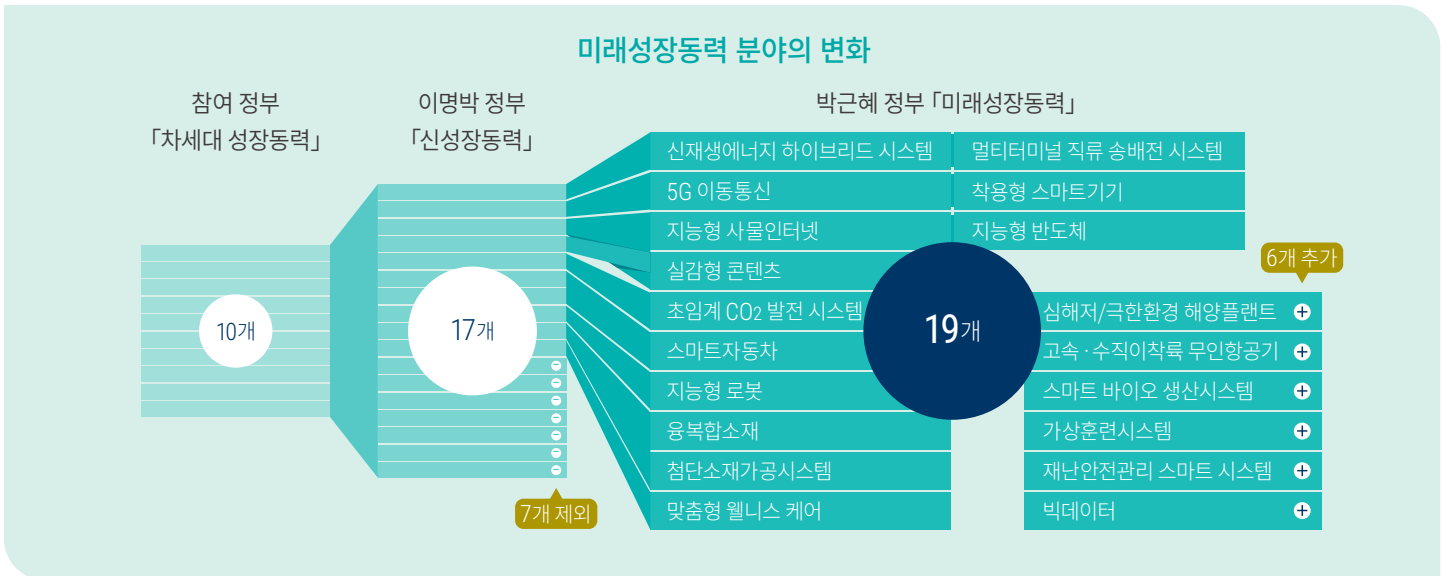
미래성장동력은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선정한 산업을 의미함.

현 정부는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2015)」에 기초하여 미래신산업, 주력산업, 공공복지·에너지산업, 기반산업의 4대 산업분야에 걸쳐 19개 분야를 발굴하여 육성하고 있음.

I. 정책추진의 연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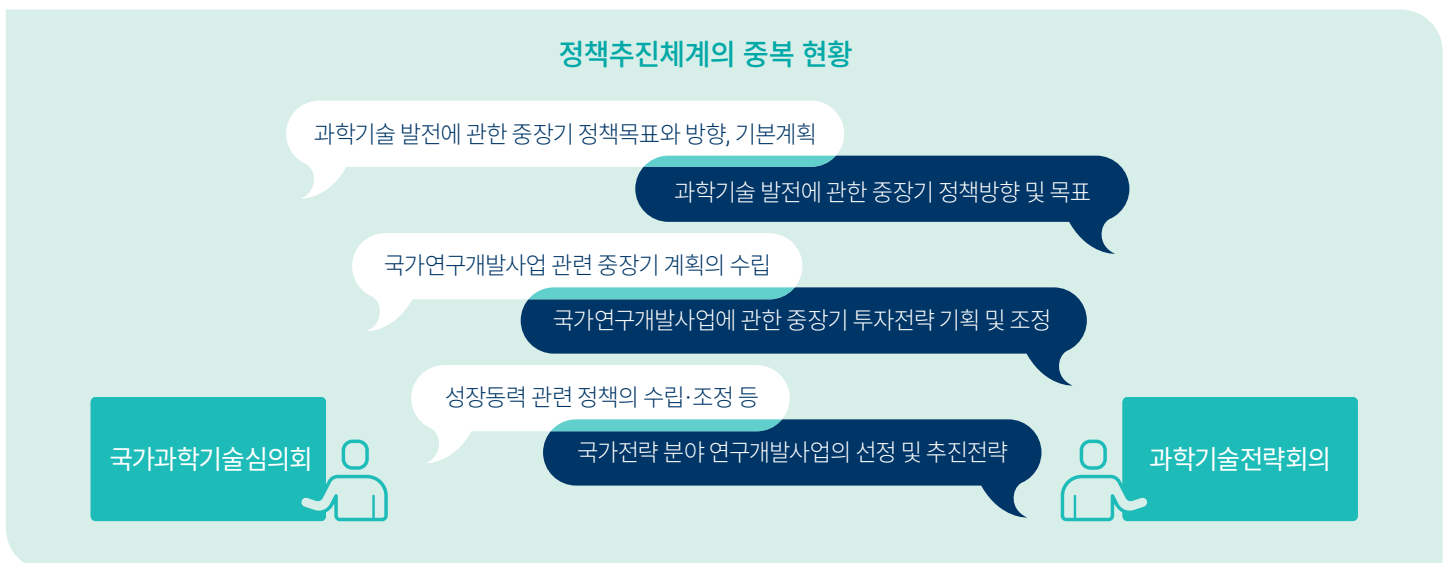
1. 미래성장동력 정책의 잦은 변화

역대 정부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면서 집중 육성분야를 변경하거나 확대해 옴. 현 정부의 19개 미래성장동력도 기존 7개 분야를 제외하고, 6개 분야를 추가하는 등의 변화로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음.



2. 미래성장동력 정책추진체계의 효율성 부재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정책추진 상위체계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로 분리되었고, 관련 부처 간의 연계도 체계적이지 못하여 정책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짐.



개선방안 미래성장동력 정책의 기본 틀과 연속성이 훼손될 수 있는 변화를 최소화하는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분리된 과학기술 정책추진체계를 단일화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II. 투자분야별 효과성

1. 정부 R&D투자의 생산성 효과

미래성장동력과 관련된 산업군은 정부투자의 생산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반면, 비관련 산업군은 정부투자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정부는 생산효과가 있는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성장동력을 선정한 것으로 분석됨.



*총요소생산성(TFP): 노동, 자본 등 단일요소 생산성 측정에 포함되지 않는 기술 등이 반영된 수치

2. 정부 R&D투자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

정부와 민간 투자액 등을 합한 전체 투자의 파급효과를 분석할 경우, 19개 미래성장동력 분야 중 6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이 6개 분야의 정부투자만을 분리해 분석하면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Spillover Effect: 어떤 부문의 활동이 다른 부문의 생산성을 증가시켜 경제 전체의 이익을 올리는 효과

개선방안 미래성장동력 분야 중 정부투자의 파급효과와 미래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정책 예산을 전략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III. 투자전략의 적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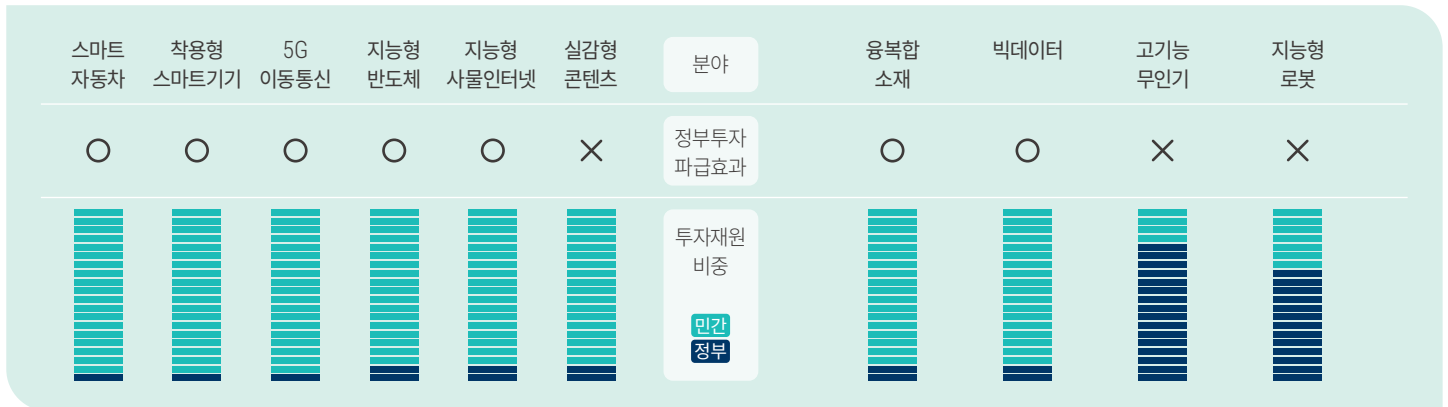
정부가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추진주체와 전략에 따라 분류한 4개 그룹별로 정부의 투자계획, 투자실태를 비교·분석함.

[그룹1] 민간주도

대부분 분야에서 정부투자의 파급효과가 있지만, 실제로 정부가 투자하는 비중은 현저히 낮음.

[그룹2] 정부-민간 공동추진

융복합소재와 빅데이터는 정부투자의 파급효과가 있지만, 민간투자에 비해 정부투자 비중이 현저히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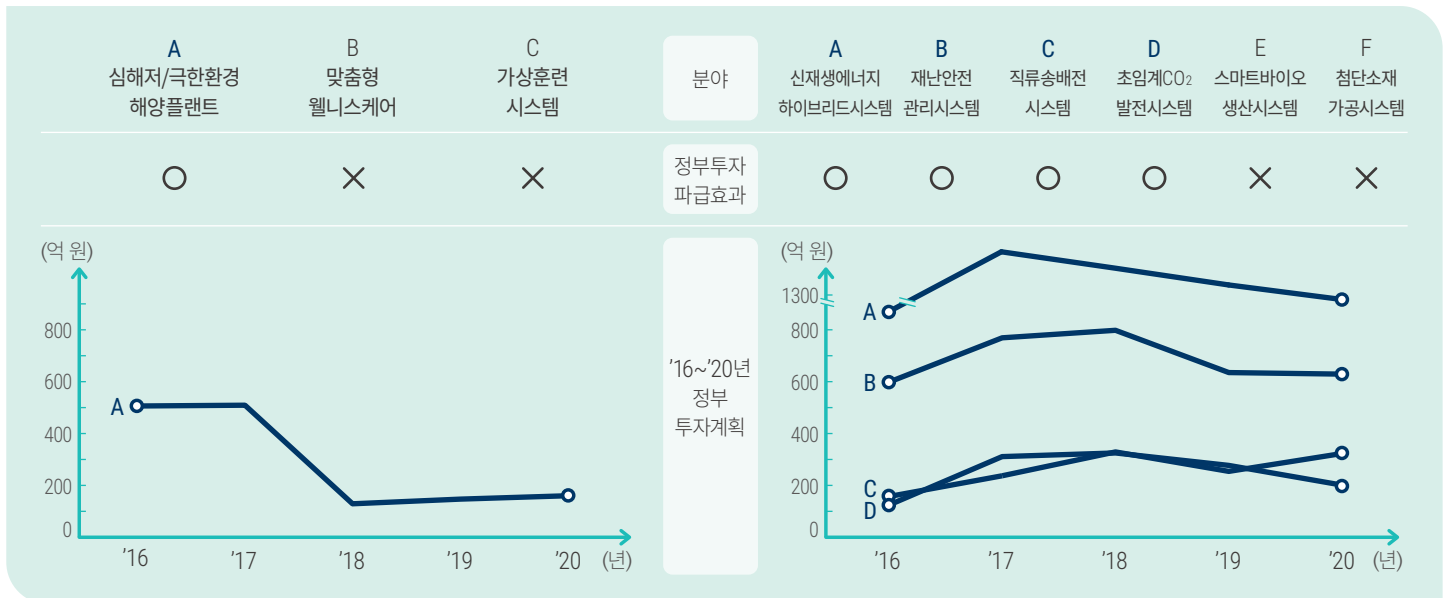


[그룹3] 민간-정부 공동추진

심해저/극한환경 해양플랜트는 정부투자의 파급효과가 있지만, 정부투자계획이 소극적으로 수립된 경향이 있음.

[그룹4] 정부주도

대부분 분야에서 정부투자의 파급효과가 있지만, 실제 정부투자가 저조하고 향후 투자계획에도 크게 반영되지 않음.



개선방안 향후 투자 시 정부투자의 파급효과를 고려하고, 투자전략과 계획 간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